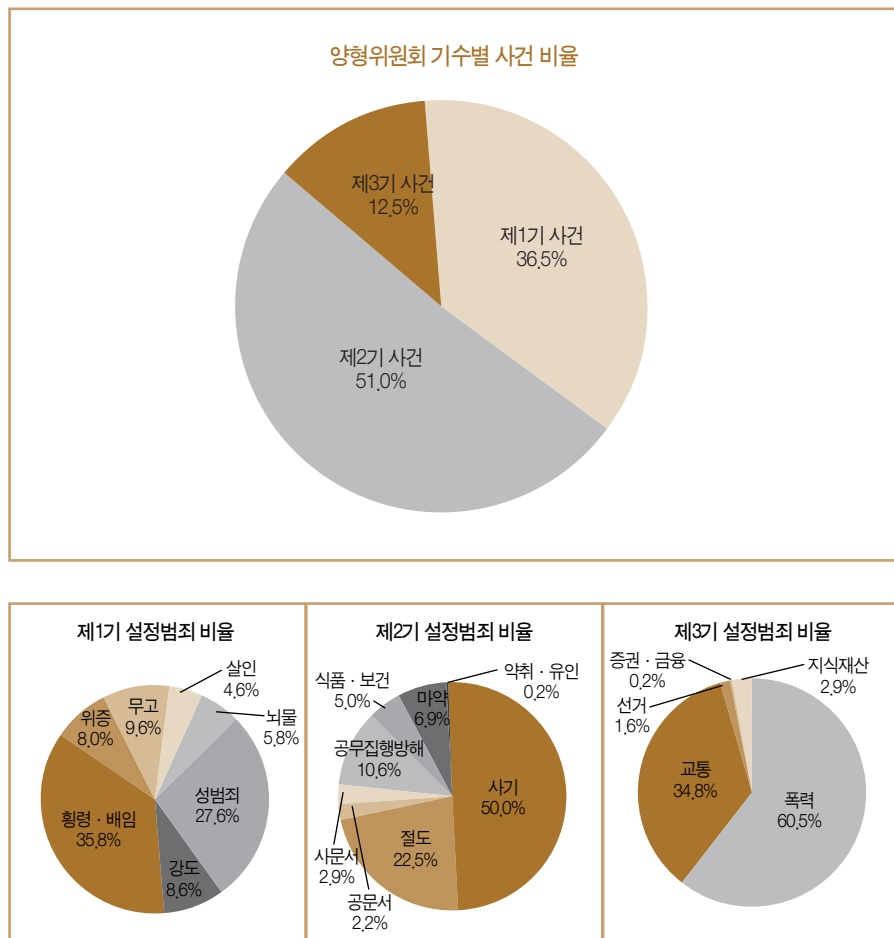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3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연도별 추이

가. 양형기준 설정범죄 사건 수

2009. 7.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선고된 사건을 양형위원회 각 기수별로 분류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기수별 전체 사건 비율은 제2기(51.0%) > 제1기(36.5%) > 제3기(12.5%) 순이었다. 기수별로는 제1기의 경우 횡령·배임범죄(35.8%) > 성범죄(27.6%) > 무고범죄(9.6%) 순으로, 제2기의 경우 사기범죄(50.0%) > 절도범죄(22.5%) > 공무집행방해범죄(10.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3기의 경우는 폭력범죄(60.5%)와

교통범죄(34.8%)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양형기준 설정범죄의 사건명에 따른 연도별 사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범죄군	사건명	제1심 선고연도				전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살인 범죄	강간살인	0	0	0	2	2
	강도살인	0	0	8	12	20
	강도살인미수	0	0	11	8	19
	살인	105	315	270	281	971
	살인미수	170	382	435	340	1,327
	살인미수교사	0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6	7	1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0	0	0	1	1
	존속살해	7	26	26	33	92
	존속살해미수	4	13	11	18	46
	폭처법(단체등의 살인)	0	0	0	2	2
	소계	286	736	767	706	2,495
뇌물 범죄	뇌물공여	59	558	447	411	1,475
	뇌물공여교사	0	0	0	2	2
	뇌물수수	46	280	282	372	980
	부정처사후수뢰	2	26	18	10	56
	수뢰후부정처사	2	27	20	18	67
	제3자뇌물교부	3	50	20	15	88
	제3자뇌물취득	4	32	31	27	94
	특가법(뇌물)	4	102	113	148	367
	소계	120	1,075	931	1,003	3,129
성범죄	강간	38	128	127	179	472
	강간살인	1	0	2	0	3
	강간상해	49	175	181	144	549
	강간치사	0	2	0	1	3
	강간치상	104	313	256	234	907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범죄군	사건명	제1심 선고연도				전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강도강간	4	24	10	15	53
	강제추행	127	548	655	1,382	2,712
	강제추행상해	11	39	47	37	134
	강제추행치상	40	115	112	116	383
	미성년자의제강간	3	16	12	19	5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4	1	4	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9	19	16	8	5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1
	상습강제추행	0	0	0	2	2
	상습준강제추행	0	0	0	1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4	302	92	49	567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4	3	1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0	83	14	8	145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0	90	5	9	154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0	0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7	82	30	16	155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11	18	4	7	40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5	168	31	21	33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	57	17	12	11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3	69	26	13	13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	7	4	2	1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	10	10	5	29
	성폭력범죄(특수강간)	91	165	45	33	334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60	132	38	42	272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1	21	3	0	35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	54	12	3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0	2	0	2
	성폭력범죄특별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54	307	247	708

단위 : 명

범죄군	사건명	제1심 선고연도				전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0	0	124	12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0	0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0	0	0	15	1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0	0	0	6	6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0	0	0	4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유사성행위)	0	0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1	1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0	110	135	28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0	2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59	105	115	279
	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	0	0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간음)	0	0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0	0	0	28	2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0	0	0	31	3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27	109	117	25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0	0	0	13	1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0	0	0	4	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0	0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0	0	0	4	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9	14	21	44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7	246	233	616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0	0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21	55	63	139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26	67	62	155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7	14	2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4	13	21	3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56	228	262	546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45	112	90	247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범죄군	사건명	제1심 선고연도				전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7	30	51	8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17	62	108	18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0	5	4	9
	아동·청소년성보호법	0	0	0	4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419	866	948	2,233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0	0	0	143	14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0	0	0	20	2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0	0	0	18	1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0	0	0	10	1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0	0	0	7	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0	0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0	0	0	42	4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0	0	0	1	1
	준강간	7	56	49	102	214
	준강간상해	0	0	0	1	1
	준강간치상	2	10	10	18	40
	준강제추행	32	104	92	191	419
	준강제추행상해	0	0	0	2	2
	준강제추행치사	0	0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	3	4	6	14
	청소년성보호법	1	0	0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0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92	88	5	1	186
	특가법(강도강간)	0	0	0	1	1
	소계	1,116	3,929	4,260	5,656	14,961
강도 범죄	강도	66	159	136	114	475
	강도교사	0	0	0	1	1
	강도살인	10	33	20	0	63

단위 : 명

범죄군	사건명	제1심 선고연도				전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강도상해	238	570	548	497	1,853
	강도상해교사	0	0	0	1	1
	강도치사	1	4	9	11	25
	강도치상	15	54	45	36	150
	준강도	43	92	94	54	283
	준특수강도	8	14	9	12	43
	특가법(강도)	4	12	10	14	40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9	15	12	38
	특강법(특수강도)	0	1	0	0	1
	특수강도	177	475	468	570	1,690
	소계	564	1,423	1,354	1,322	4,663
횡령· 배임 범죄	배임	111	513	464	391	1,479
	업무상배임	71	439	484	456	1,450
	업무상횡령	602	2,484	2,356	2,096	7,538
	특경가법(배임)	27	190	254	371	842
	특경가법(횡령)	33	334	492	473	1,332
	횡령	533	2,293	2,177	1,790	6,793
	소계	1,377	6,253	6,227	5,577	19,434
위증 범죄	모해위증	3	14	18	18	53
	위증	296	1,260	1,098	1,009	3,663
	위증교사	58	231	201	129	619
	소계	357	1,505	1,317	1,156	4,335
무고 범죄	무고	349	1,687	1,729	1,404	5,169
	무고교사	0	0	0	9	9
	특가법(무고)	1	8	7	8	24
	특가법(무고)교사	0	0	0	1	1
	소계	350	1,695	1,736	1,422	5,203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범죄군	사건명	제1심 선고연도				전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약취· 유인 범죄	간음약취	-	-	0	1	1
	미성년자약취	-	-	0	18	18
	미성년자유인	-	-	2	11	13
	영리약취	-	-	0	2	2
	영리유인	-	-	0	2	2
	특가법(약취·유인)	-	-	2	15	17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	-	6	66	72
	소계	-	-	10	115	125
사기 범죄	사기	-	-	6,284	30,007	36,291
	사기교사	-	-	0	2	2
	상습사기	-	-	36	138	174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	-	0	2	2
	준사기	-	-	4	18	22
	컴퓨터등사용사기	-	-	74	396	470
	특경가법(사기)	-	-	123	824	947
	소계	-	-	6,521	31,387	37,908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	-	4	19	23
	산림보호법위반	-	-	6	39	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	28	181	209
	상습절도	-	-	0	7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	143	499	6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	-	0	2	2
	야간방식침입절도	-	-	17	58	75
	야간선박침입절도	-	-	0	2	2
	야간주거침입절도	-	-	128	394	522
	절도	-	-	1,742	6,221	7,963
	절도교사	-	-	0	17	17
	특가법(산림)	-	-	10	22	32
	특가법(상습절도)	-	-	0	2	2

단위 : 명

범죄군	사건명	제1심 선고연도				전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특가법(절도)	-	-	698	2,214	2,912
	특수절도	-	-	861	3,733	4,594
	특수절도교사	-	-	0	4	4
	소계	-	-	3,637	13,414	17,051
공문서 범죄	공도화변조	-	-	0	1	1
	공문서변조	-	-	16	72	88
	공문서변조교사	-	-	0	1	1
	공문서부정행사	-	-	56	274	330
	공문서부정행사교사	-	-	0	2	2
	공문서위조	-	-	63	273	336
	공문서위조교사	-	-	0	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	100	502	6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	-	0	1	1
	공전자기록등위작	-	-	3	12	1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22	148	170
	변조공문서행사	-	-	2	2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	0	3	3
	위조공문서행사	-	-	5	23	28
	허위공문서작성	-	-	18	37	55
	허위공문서행사	-	-	0	1	1
	소계	-	-	285	1,353	1,638
사문서 범죄	변조사문서행사	-	-	1	8	9
	사문서변조	-	-	12	95	107
	사문서부정행사	-	-	3	2	5
	사문서위조	-	-	351	1,524	1,875
	사문서위조교사	-	-	0	4	4
	사문서위조행사	-	-	1	0	1
	사전자기기록등변작	-	-	0	4	4
	사전자기기록등위변작	-	-	0	2	2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범죄군	사건명	제1심 선고연도				전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사전자기등록위작	-	-	12	14	26
	사전자기등록변작	-	-	0	1	1
	위작사전자기등록행사	-	-	1	0	1
	위조사문서행사	-	-	15	47	62
	위조사서명행사	-	-	0	2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	8	52	60
	허위진단서작성	-	-	4	3	7
	소계	-	-	408	1,758	2,166
공무 집행 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	-	1,530	4,538	6,068
	공무집행방해교사	-	-	0	1	1
	공용건조물파괴	-	-	2	1	3
	공용물건무효	-	-	1	1	2
	공용물건손상	-	-	201	670	871
	공용물건손상교사	-	-	0	2	2
	공용물건은닉	-	-	1	0	1
	공용서류무효	-	-	2	8	10
	공용서류손상	-	-	16	61	77
	공용서류은닉	-	-	3	2	5
	공용전자기록등손상	-	-	0	1	1
	위계공무집행방해	-	-	36	286	322
	특수공무집행방해	-	-	88	319	4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	53	174	227
	특수공용건조물파괴	-	-	0	1	1
	특수공용물건손상	-	-	5	12	17
	소계	-	-	1,938	6,077	8,015
식품 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	15	66	8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	-	6	4	10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	171	517	6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	80	226	306

단위 : 명

범죄군	사건명	제1심 선고연도				전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	-	0	1	1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	-	0	1	1
	식품위생법위반	-	-	277	1,156	1,433
	약사법위반	-	-	77	276	353
	의료법위반	-	-	171	622	793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	-	2	2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	-	10	61	71
	화장품법위반	-	-	8	22	30
	소계	-	-	817	2,954	3,771
마약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	162	431	5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	23	31	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	940	3,061	4,00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	-	132	412	544
	특가법(마약)	-	-	0	1	1
	특가법(향정)	-	-	0	8	8
	소계	-	-	1,257	3,944	5,201
증권 · 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	-	13	13
	증권거래법위반	-	-	-	4	4
	특경가법(수재등)	-	-	-	3	3
	특경가법(알선수재)	-	-	-	18	18
	특경가법(증재등)	-	-	-	3	3
	소계	-	-	-	41	41
지식 재산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	-	-	6	6
	부경법(영업비밀누설등)	-	-	-	3	3
	상표법위반	-	-	-	327	327
	실용신안법위반	-	-	-	1	1
	저작권법위반	-	-	-	208	208
	특허법위반	-	-	-	3	3
	소계	-	-	-	548	548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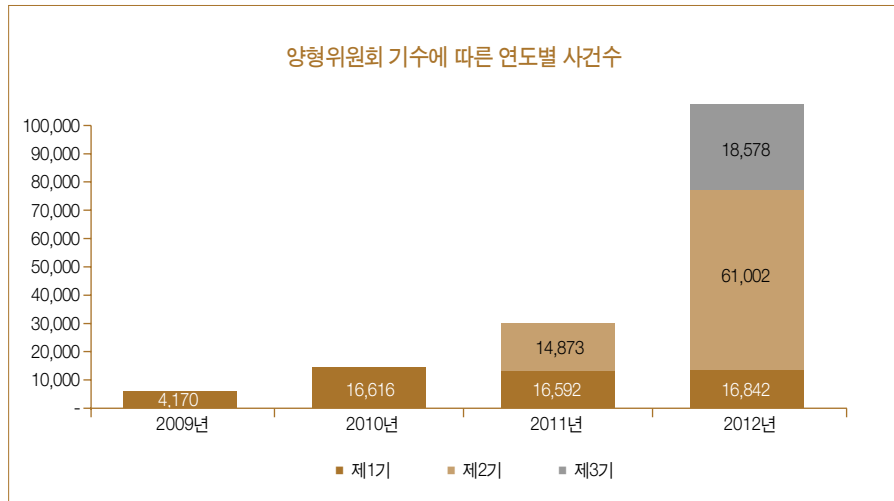
범죄군	사건명	제1심 선고연도				전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폭력 범죄	상해	-	-	-	4,640	4,640
	상해치사	-	-	-	26	26
	존속상해	-	-	-	37	37
	존속중상해	-	-	-	2	2
	존속폭행	-	-	-	4	4
	존속폭행치상	-	-	-	1	1
	존속협박	-	-	-	4	4
	중상해	-	-	-	10	10
	집단흥기등폭행	-	-	-	1	1
	특가법(보복범죄등)	-	-	-	50	50
	특가법(운전자폭행등)	-	-	-	254	254
	특수존속협박	-	-	-	1	1
	특수폭행	-	-	-	17	17
	특수협박	-	-	-	28	28
	폭처법(공동상해)	-	-	-	1,267	1,267
	폭처법(공동존속상해)	-	-	-	2	2
	폭처법(공동폭행)	-	-	-	269	269
	폭처법(공동협박)	-	-	-	33	33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	-	-	1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	-	-	2	2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	-	-	3	3
	폭처법(상습상해)	-	-	-	31	31
	폭처법(상습존속폭행)	-	-	-	3	3
	폭처법(상습폭행)	-	-	-	30	30
	폭처법(상습협박)	-	-	-	7	7
	폭처법(야간·공동상해)	-	-	-	2	2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	-	-	1,574	1,574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	-	-	2	2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	-	-	12	12

단위 : 명

범죄군	사건명	제1심 선고연도				전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	-	-	5	5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	-	-	7	7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	-	-	355	355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	-	-	527	527
	폭처법(흥기등상해)	-	-	-	11	11
	폭처법(흥기등협박)	-	-	-	8	8
	폭행	-	-	-	1,694	1,694
	폭행교사	-	-	-	1	1
	폭행치사	-	-	-	16	16
	폭행치상	-	-	-	47	47
	협박	-	-	-	247	247
	소계	-	-	-	11,231	11,231
교통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3,547	3,547
	특가법(도주차량)	-	-	-	1,672	1,672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	-	-	1,243	1,243
	소계	-	-	-	6,462	6,462
선거 범죄	공직선거법위반	-	-	-	296	296
	소계	-	-	-	296	296
전 체		4,170	16,616	31,645	96,422	148,673

양형위원회의 기수에 따른 연도별 사건수는 아래 그림과 같다.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나.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비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라도 모든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을 제외한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비율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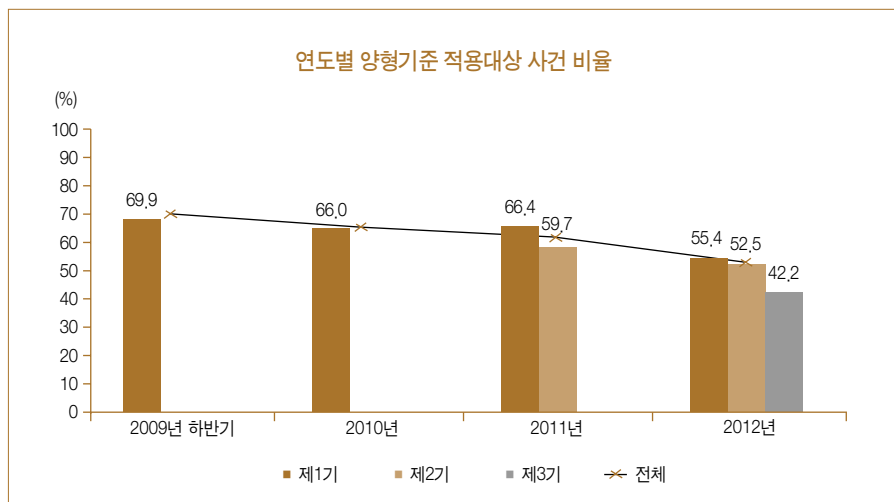
단위 : 명, %

범죄군	제1심선고 연도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제1기	살인범죄	272	95.1	663	90.1▼	695	90.6▲	608	86.1▼	2,238	89.7
	뇌물범죄	90	75.0	671	62.4▼	647	69.5▲	636	63.4▼	2,044	65.3
	성범죄	812	72.8	2,787	70.9▼	2,953	69.3▼	2,871	50.8▼	9,423	63.0
	강도범죄	455	80.7	1,084	76.2▼	1,040	76.8▲	919	69.5▼	3,498	75.0
	횡령·배임범죄	933	67.8	4,147	66.3▼	4,171	67.0▲	3,156	56.6▼	12,407	63.8
	위증범죄	178	49.9	781	51.9▲	650	49.4▼	481	41.6▼	2,090	48.2
	무고범죄	176	50.3	835	49.3▼	861	49.6▲	654	46.0▼	2,526	48.5
제1기 소계		2,916	69.9	10,968	66.0▼	11,017	66.4▲	9,325	55.4▼	34,226	63.1
제2기	약취·유인범죄	-	-	-	-	8	80.0	89	77.4▼	97	77.6
	사기범죄	-	-	-	-	3,860	59.2	16,522	52.6▼	20,382	53.8
	절도범죄	-	-	-	-	2,698	74.2	7,734	57.7▼	10,432	61.2

단위 : 명, %

범죄군	제1심선고 연도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공문서범죄	-	-	-	-	121	42.5	606	44.8▲	727	44.4
	사문서범죄	-	-	-	-	238	58.3	834	47.4▼	1,072	49.5
	공무집행방해범죄	-	-	-	-	701	36.2	2,514	41.4▲	3,215	40.1
	식품·보건범죄	-	-	-	-	117	14.3	394	13.3▼	511	13.6
	마약범죄	-	-	-	-	1,135	90.3	3,313	84.0▼	4,448	85.5
제2기 소계		-	-	-	-	8,878	59.7	32,006	52.5▼	40,884	53.9
제3기	증권·금융범죄	-	-	-	-	-	-	14	34.1	14	34.1
	지식재산범죄	-	-	-	-	-	-	129	23.5	129	23.5
	폭력범죄	-	-	-	-	-	-	4,151	37.0	4,151	37.0
	교통범죄	-	-	-	-	-	-	3,328	51.5	3,328	51.5
	선거범죄	-	-	-	-	-	-	227	76.7	227	76.7
제3기 소계		-	-	-	-	-	-	7,849	42.2	7,849	42.2
전체		2,916	69.9	10,968	66.0▼	19,895	63.2▼	49,180	51.0▼	82,959	55.8

※ 주: 전년도에비해서 양형기준 적용비율이 낮게 나타난 경우에는 '▼', 높게 나타난 경우에는 '▲' 로 나타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비율에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2년에는 적용대상 사건 비율이 하락하였다. 이는 이전에 비해 벌금형 이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하 사건(무죄, 공소기각, 소년부송치 포함)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이라도 병합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선고결과가 병합한 사건과 피병합 사건 모두에서 이중으로 통계에 반영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병합사건의 경우 병합한 사건과 피병합 사건 중 양형기준 상의 기준 형량이 더 높은 사건에 대하여만 통계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는 '기타(병합)사건'으로 분류하여 세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연도별 '기타(병합)사건'의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범죄군	제1심 선고연도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살인범죄	0	1	6	4	11
뇌물범죄	1	48	47	73	169
성범죄	6	49	85	86	226
강도범죄	1	35	49	43	128
횡령·배임범죄	17	258	509	398	1,182
위증범죄	1	24	32	23	80
무고범죄	0	34	84	41	159
약취·유인범죄	-	-	0	9	9
사기범죄	-	-	889	4,302	5,191
절도범죄	-	-	218	1,128	1,346
공문서범죄	-	-	5	62	67
사문서범죄	-	-	10	100	110
공무집행방해범죄	-	-	16	75	91
식품·보건범죄	-	-	1	5	6
마약범죄	-	-	100	493	593
증권·금융범죄	-	-	-	0	0
지식재산범죄	-	-	-	0	0
폭력범죄	-	-	-	189	189
교통범죄	-	-	-	28	28
선거범죄	-	-	-	0	0
전체	26	449	2,051	7,059	9,585

다. 양형기준 준수율

양형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은 위에서 언급한 ‘양형기준 비적용 사건’ 및 ‘기타(병합)사건’을 제외한 사건이다(이하 모든 내용에서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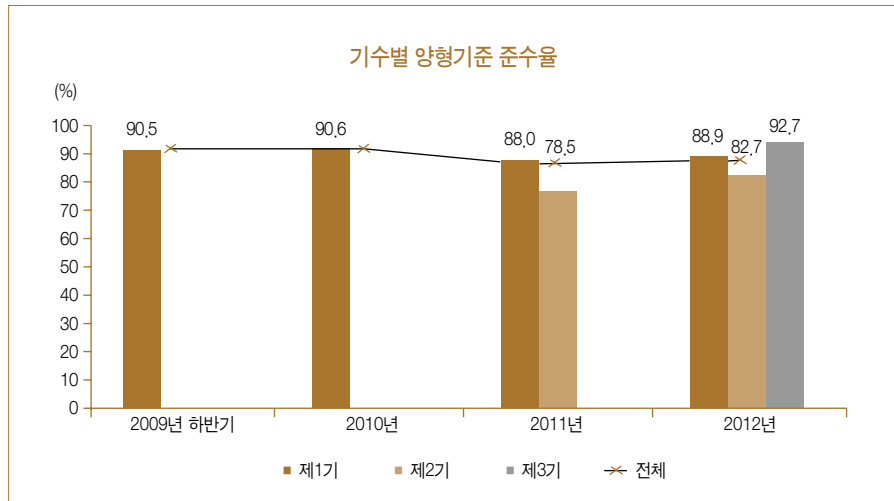
(1) 범죄군별 준수율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양형기준 준수율 추이는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 명, %

범죄군	제1심 선고 연도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제1기	살인범죄	239	87.9	595	89.9▲	618	89.7▼	536	88.7▼	1,988	89.3
	뇌물범죄	74	83.1	484	77.7▼	483	80.5▲	460	81.7▲	1,501	80.1
	성범죄	714	88.6	2,372	86.6▼	2,270	79.1▼	2,386	85.7▲	7,742	84.2
	강도범죄	392	86.3	944	90.0▲	905	91.3▲	781	89.2▼	3,022	89.7
	횡령·배임범죄	886	96.7	3,668	94.3▼	3,395	92.7▼	2,545	92.3▼	10,494	93.5
	위증범죄	150	84.7	686	90.6▲	556	90.0▼	411	89.7▼	1,803	89.7
	무고범죄	161	91.5	776	96.9▲	757	97.4▲	578	94.3▼	2,272	96.0
제1기 소계		2,616	90.5	9,525	90.6▲	8,984	88.0▼	7,697	88.9▲	28,822	89.3
제2기	약취·유인범죄	-	-	-	-	5	62.5	55	68.8▲	60	68.2
	사기범죄	-	-	-	-	2,255	75.9	10,127	82.9▲	12,382	81.5
	절도범죄	-	-	-	-	1,951	78.7	5,331	80.7▲	7,282	80.1
	공문서범죄	-	-	-	-	91	78.4	466	85.7▲	557	84.4
	사문서범죄	-	-	-	-	208	91.2	701	95.5▲	909	94.5
	공무집행방해범죄	-	-	-	-	619	90.4	2,120	86.9▼	2,739	87.7
	식품·보건범죄	-	-	-	-	79	68.1	313	80.5▲	392	77.6
	마약범죄	-	-	-	-	789	76.2	2,258	80.1▲	3,047	79.0
제2기 소계		-	-	-	-	5,997	78.5-	21,371	82.7▲	27,368	81.8
제3기	증권·금융범죄	-	-	-	-	-	-	12	85.7	12	85.7
	지식재산범죄	-	-	-	-	-	-	116	89.9	116	89.9
	폭력범죄	-	-	-	-	-	-	3,718	93.8	3,718	93.8
	교통범죄	-	-	-	-	-	-	3,013	91.3	3,013	91.3
	선거범죄	-	-	-	-	-	-	214	94.3	214	94.3
제3기 소계		-	-	-	-	-	-	7,073	92.7	7,073	92.7
전체		2,616	90.5	9,525	90.6▲	14,981	84.0▼	36,141	85.8▲	63,263	86.2

※ 주: 전년도에 비해서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게 나타난 경우에는 ‘▼’, 높게 나타난 경우에는 ‘▲’로 나타냄



연도별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면 2009년과 2010년은 90.5%, 90.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84.0%로 다소 낮아졌으며, 2012년은 85.8%로 전년과 비교해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2011년도의 전체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2011. 7. 1. 제2기 양형기준이 시행됨으로써 새롭게 시행된 양형기준이 형사재판실무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1기 적용대상 범죄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90.5% → 90.6% → 88.0% → 88.9%로서 시행 초기부터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위 준수율이 계속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2기 적용대상 범죄의 경우는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의 준수율이 78.5% → 82.7%로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별로도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제외한 적용대상 범죄 전체에서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3기 적용대상 범죄의 경우 92.7%의 상당히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2)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의 지방법원(관내 지원 포함)별 양형기준 준수율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

지방 법원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제1기	제2기	제3기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전체	제1기	제2기	제3기	전체
A	89.3	-	-	89.3	91.7▲	-	-	91.7▲	85.1▼	81.0	-	83.1▼	84.8▼	82.5▲	93.1	84.1▲
B	90.2	-	-	90.2	89.7▼	-	-	89.7▼	86.5▼	72.2	-	79.8▼	87.2▲	81.4▲	93.9	84.7▲
C	89.8	-	-	89.8	92.0▲	-	-	92.0▲	87.1▼	78.4	-	83.2▼	93.4▲	83.3▲	91.1	86.5▲
D	91.6	-	-	91.6	86.4▼	-	-	86.4▼	81.2▼	81.3	-	81.2▼	80.3▼	81.0▼	96.1	83.3▲
E	88.0	-	-	88.0	91.3▲	-	-	91.3▲	90.3▼	75.3	-	83.8▼	93.2▲	78.7▲	92.2	83.2▼
F	88.2	-	-	88.2	92.6▲	-	-	92.6▲	87.5▼	80.5	-	84.8▼	88.4▲	83.0▲	93.8	86.2▲
G	88.2	-	-	88.2	88.2-	-	-	88.2-	89.5▲	82.3	-	86.7▼	93.0▲	83.9▲	93.3	87.4▲
H	89.0	-	-	89.0	90.2▲	-	-	90.2▲	88.4▼	76.3	-	83.3▼	90.9▲	82.8▲	94.5	86.8▲
I	89.3	-	-	89.3	91.8▲	-	-	91.8▲	87.9▼	83.0	-	85.7▼	91.1▲	86.0▲	92.7	88.4▲
J	88.6	-	-	88.6	87.2▼	-	-	87.2▼	87.3▲	77.0	-	83.1▼	89.4▲	86.0▲	92.6	88.2▲
K	87.4	-	-	87.4	88.0▲	-	-	88.0▲	87.0▼	77.6	-	82.9▼	90.2▲	83.6▲	91.1	86.2▲
L	95.0	-	-	95.0	93.9▼	-	-	93.9▼	91.3▼	78.7	-	86.3▼	92.4▲	84.0▲	91.9	87.2▲
M	91.3	-	-	91.3	92.5▲	-	-	92.5▲	92.2▼	80.0	-	86.4▼	90.2▼	81.3▲	92.0	84.4▼
N	95.9	-	-	95.9	96.0▲	-	-	96.0▲	93.9▼	83.2	-	89.5▼	84.8▼	81.6▼	87.3	83.5▼
O	93.2	-	-	93.2	90.8▼	-	-	90.8▼	86.3▼	80.8	-	84.0▼	87.5▲	81.6▲	89.6	84.4▲
P	90.4	-	-	90.4	86.8▼	-	-	86.8▼	84.2▼	67.6	-	77.1▼	84.6▲	77.8▲	94.3	83.2▲
Q	91.8	-	-	91.8	90.8▼	-	-	90.8▼	86.5▼	86.2	-	86.4▼	85.1▼	87.2▲	88.5	87.0▲
R	98.0	-	-	98.0	92.5▼	-	-	92.5▼	90.2▼	73.9	-	82.5▼	83.8▼	83.3▲	92.9	85.3▲
전체	90.5	-	-	90.5	90.6▲	-	-	90.6▲	88.0▼	78.5	-	84.0▼	88.9▲	82.7▲	92.7	85.8▲

※ 주: 전년도에 비해서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게 나타난 경우에는 '▼', 높게 나타난 경우에는 '▲' 로 나타냄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라.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율

판결문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형종 및 형량의 기준 등을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명시적 기재율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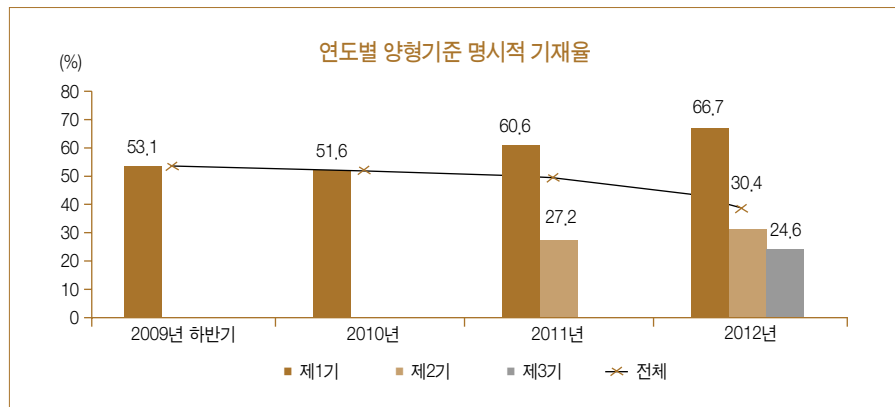
단위 : 명, %

범죄군		1심 선고연도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제 1 기	살인범죄	218	80.1	542	81.9▲	642	93.2▲	587	97.2▲	1,989	89.3		
	뇌물범죄	37	41.6	376	60.4▲	407	67.8▲	424	75.3▲	1,244	66.3		
	성범죄	602	74.7	2,079	75.9▲	2,443	85.2▲	2,443	87.7▲	7,567	82.3		
	강도범죄	353	77.8	771	73.5▼	840	84.8▲	808	92.2▲	2,772	82.3		
	횡령·배임범죄	223	24.3	1,206	31.0▲	1,387	37.9▲	1,155	41.9▲	3,971	35.4		
	위증범죄	53	29.9	220	29.1▼	202	32.7▲	149	32.5▼	624	31.0		
	무고범죄	48	27.3	235	29.3▲	259	33.3▲	205	33.4▲	747	31.6		
제1기 소계		1,534	53.1	5,429	51.6▼	6,180	60.6▲	5,771	66.7▲	18,914	58.6		
제 2 기	약취·유인범죄	-	-	-	-	8	100.0	46	57.5▼	54	61.4		
	사기범죄	-	-	-	-	779	26.2	3,637	29.8▲	4,416	29.1		
	절도범죄	-	-	-	-	698	28.1	2,135	32.3▲	2,833	31.2		
	공문서범죄	-	-	-	-	23	19.8	109	20.0▲	132	20.0		
	사문서범죄	-	-	-	-	30	13.2	158	21.5▲	188	19.5		
	공무집행방해범죄	-	-	-	-	152	22.2	603	24.7▲	755	24.2		
	식품·보건범죄	-	-	-	-	13	11.2	90	23.1▲	103	20.4		
	마약범죄	-	-	-	-	372	35.9	1,077	38.2▲	1,449	37.6		
제2기 소계		-	-	-	-	2,075	27.2	7,855	30.4▲	9,930	29.7		
제 3 기	증권·금융범죄	-	-	-	-	-	-	8	57.1	8	57.1		
	지식재산범죄	-	-	-	-	-	-	16	12.4	16	12.4		
	폭력범죄	-	-	-	-	-	-	818	20.6	818	20.6		
	교통범죄	-	-	-	-	-	-	890	27.0	890	27.0		
	선거범죄	-	-	-	-	-	-	149	65.6	149	65.6		
제3기 소계		-	-	-	-	-	-	1,881	24.6	1,881	24.6		
전체		1,534	53.1	5,429	51.6▼	8,255	46.3▼	15,507	36.8▼	30,725	41.9		

※ 주 : 전년도에비해서 명시적 기재율이 낮게 나타난 경우에는 '▼', 높게 나타난 경우에는 '▲' 로 나타냄

양형기준 시행 이후 전체 명시적 기재율은 해마다 낮아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독사건의 비율이 높은 2기, 3기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고, 각 기수별, 범죄군별 흐름을 보면 오히려 명시적 기재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1기 적용대상 범죄의 경우 2010년을 제외하고 명시적 기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위증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명시적 기재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2기 적용대상 범죄의 경우에도 약취·유인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2011년에 비해 명시적 기재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율의 변동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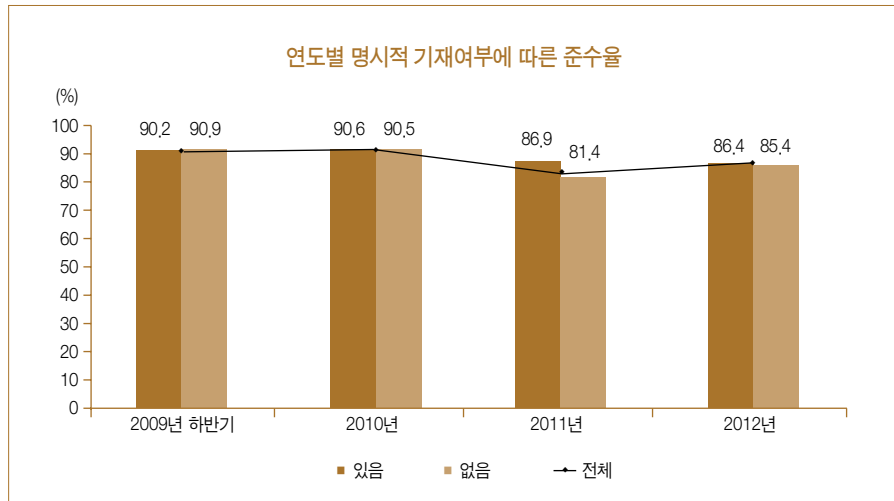


마. 명시적 기재여부에 따른 준수율

명시적 기재여부에 따른 양형기준 준수율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 명, %

양형기준 준수여부	명시적 기재여부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준수	부준수	준수	부준수	준수	부준수	준수	부준수	준수	부준수
있음	수	1,384	150	4,918	511	7,171	1,084	13,400	2,107	26,873	3,852
	비율	90.2	9.8	90.6▲	9.4▼	86.9▼	13.1▲	86.4▼	13.6▲	87.5	12.5
없음	수	1,232	124	4,607	483	7,810	1,779	22,741	3,873	36,390	6,259
	비율	90.9	9.1	90.5▼	9.5▲	81.4▼	18.6▲	85.4▲	14.6▼	85.3	14.7
전체	수	2,616	274	9,525	994	14,981	2,863	36,141	5,980	63,263	10,111
	비율	90.5	9.5	90.6	9.4	84.0	16.0	85.8	14.2	86.2	13.8



판결문에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양형기준 준수율을 비교해 보면, 양형기준이 최초로 시행된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명시적 기재가 있는 경우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4 살인범죄

가. 개관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최초 시행 후 한 차례 수정되어 2011. 4. 15.부터 수정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양형기준 수정을 통해 중대범죄인 성범죄, 강도범죄가 결합된 살인 및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으며, 권고형량도 상향조정되었다. 다만, 최초 양형기준(2009. 7. 1. 시행)에 해당하는 사건이 2012년에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수정 양형기준에 대하여만 적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나. 분포현황

(1) 선고내역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사건 604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구분	유형		선고내역				전체
			사형	무기징역	실형	집행유예	
살인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수	0	0	17	1	18
		비율	0.0	0.0	94.4	5.6	100.0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수	1	1	224	1	227
		비율	0.4	0.4	98.7	0.4	100.0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수	0	3	13	0	16
		비율	0.0	18.8	81.3	0.0	100.0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수	1	7	8	0	16
		비율	6.3	43.8	50.0	0.0	100.0
살인미수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수	0	0	0	4	4
		비율	0.0	0.0	0.0	100.0	100.0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수	0	0	206	98	304
		비율	0.0	0.0	67.8	32.2	100.0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수	0	0	8	3	11
		비율	0.0	0.0	72.7	27.3	100.0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수	0	1	7	0	8
		비율	0.0	12.5	87.5	0.0	100.0
	전체	수	0	1	221	105	327
		비율	0.0	0.3	67.6	32.1	100.0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2건, 무기징역 11건, 실형 262건(94.6%), 집행유예 2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살인미수죄의 경우는 무기징역 1건, 실형 221건(67.6%), 집행유예 105건(32.1%)으로 나타났다. 전체사건 중 제5유형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살인죄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2건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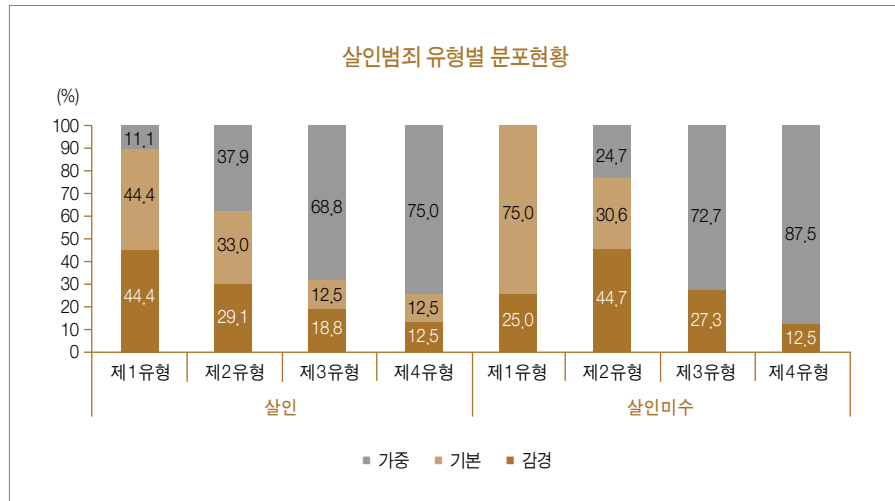
법원	권고 형량	선고 형량	특별양형인자	준수 여부	내용
서울북부 지법	6년~ 10년	3년	심신미약, 처벌불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부준수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영아 살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3년~ 5년	3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준수	남편과의 불화로 삶의 비관 끝에 피해자인 영아(嬰兒)와 동반 투신자살 기도

(2) 유형 및 영역구분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경	기본	가중	
살인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수	8	8	2	18
		비율	44.4	44.4	11.1	100.0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수	66	75	86	227
		비율	29.1	33.0	37.9	100.0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수	3	2	11	16
		비율	18.8	12.5	68.8	100.0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수	2	2	12	16
		비율	12.5	12.5	75.0	100.0
	전체	수	79	87	111	277
		비율	28.5	31.4	40.1	100.0
살인미수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수	1	3	0	4
		비율	25.0	75.0	0.0	100.0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수	136	93	75	304
		비율	44.7	30.6	24.7	100.0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수	3	0	8	11
		비율	27.3	0.0	72.7	100.0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수	1	0	7	8
		비율	12.5	0.0	87.5	100.0
	전체	수	141	96	90	327
		비율	43.1	29.4	27.5	100.0



살인죄는 가중영역(40.1%) > 기본영역(31.4%) > 감경영역(28.5%) 순으로, 살인미수죄는 감경영역(43.1%) > 기본영역(29.4%) > 가중영역(27.5%)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비율을 보면 살인죄는 제1유형의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제2, 3, 4유형은 가중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살인미수죄는 제1유형의 경우 기본영역이 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제2유형은 감경영역이, 제3, 4유형은 가중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연도별 형량비교

양형기준 시행 이후인 2009. 7.부터 2012. 12.까지의 연도별 평균형량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사건

살인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살인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감경	5	34.8	10	38.4	5	49.2	8	44.3
		기본	3	66.0	4	42.0	4	66.0	8	54.0
		가중	2	102.0	4	48.0	3	64.0	2	78.0
		합계	10	57.6	18	41.3	12	58.5	18	52.3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감경	33	83.1	89	86.6	81	93.4	66	91.6
		기본	20	116.4	73	124.6	56	125.0	75	135.9
		가중	39	156.6	96	159.4	97	181.5	84	181.4
		합계	92	121.5	258	124.4	234	137.5	225	139.9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감경	-	-	1	84.0	1	180.0	3	224.0
		기본	-	-	2	150.0	6	194.0	2	180.0
		가중	2	210.0	7	185.1	12	283.0	8	265.5
		합계	2	210.0	10	168.0	19	249.5	13	242.8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감경	-	-	-	-	2	186.0	2	258.0
		기본	-	-	-	-	2	240.0	2	270.0
		가중	-	-	-	-	3	260.0	4	234.0
		합계	-	-	-	-	7	233.1	8	249.0
	전체	감경	38	76.7	100	81.7	89	94.0	79	96.1
		기본	23	109.8	79	121.0	68	131.0	87	132.5
		가중	43	156.6	107	156.9	115	191.1	98	188.3
		합계	104	117.1	286	120.7	272	144.3	264	142.3
살인 미수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감경	2	24.0	4	24.0	4	27.8	1	18.0
		기본	1	36.0	3	29.3	-	-	3	27.0
		가중	-	-	4	30.0	-	-	-	-
		합계	3	28.0	11	27.6	4	27.8	4	24.8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감경	78	28.8	188	29.8	206	30.1	136	31.6
		기본	36	36.2	69	37.9	87	37.2	93	44.1
		가중	43	49.0	76	48.9	89	61.8	75	64.4
		합계	157	36.0	333	35.8	382	39.1	304	43.5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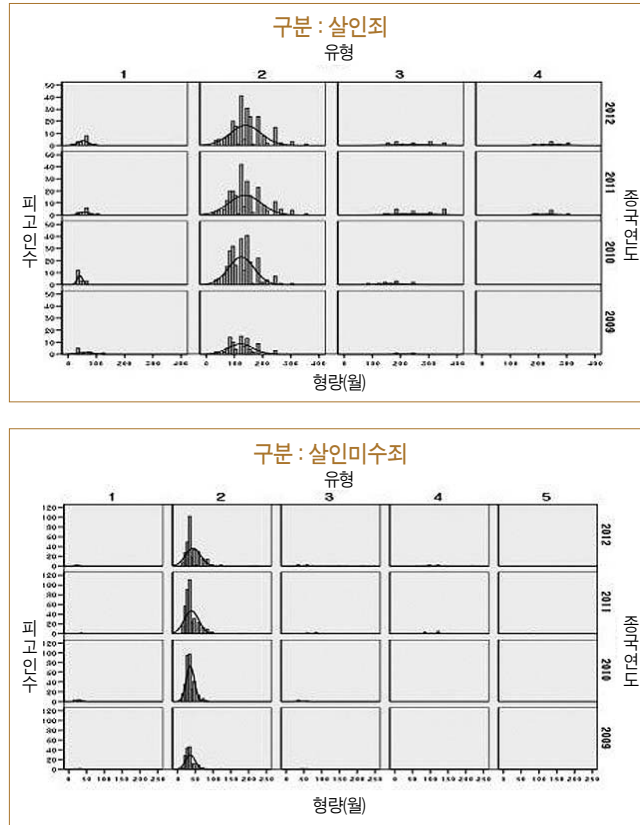
구분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감경	-	-	4	42.0	-	-	3	34.0
		기본	2	51.0	-	-	2	54.0	-	-
		가중	1	48.0	-	-	6	70.0	8	87.0
		합계	3	50.0	4	42.0	8	66.0	11	72.5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감경	-	-	-	-	3	88.0	1	108.0
		기본	-	-	-	-	5	117.6	-	-
		가중	-	-	-	-	4	96.0	6	122.0
		합계	-	-	-	-	12	103.0	7	120.0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감경	-	-	-	-	-	-	-	-
		기본	-	-	-	-	-	-	-	-
		가중	-	-	-	-	1	72.0	-	-
		합계	-	-	-	-	1	72.0	-	-
	전체	감경	80	28.7	196	29.9	213	30.9	141	32.1
		기본	39	37.0	72	37.5	94	41.8	96	43.5
		가중	44	49.0	80	48.0	100	63.7	89	70.3
		합계	163	36.1	348	35.6	407	41.5	326	45.9

살인죄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의 평균형량은 10년 안팎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평균형량이 약 12년으로 증가하였으며, 살인미수죄의 경우 2009년에는 평균형량이 3년이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약 3년10월에 이르렀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살인죄는 양형기준 시행 초기인 2009년에 비해 모든 유형에서 등락이 발생하였고 2012년의 평균형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살인미수죄는 모든 유형에서 2009년 이후 평균형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살인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2)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사건

살인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살인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감경	4	36.0	10	38.4	4	51.0	7	42.0
		기본	2	63.0	3	44.0	4	66.0	6	50.0
		가중	2	102.0	4	48.0	3	64.0	2	78.0
		합계	8	59.3	17	41.6	11	60.0	15	50.0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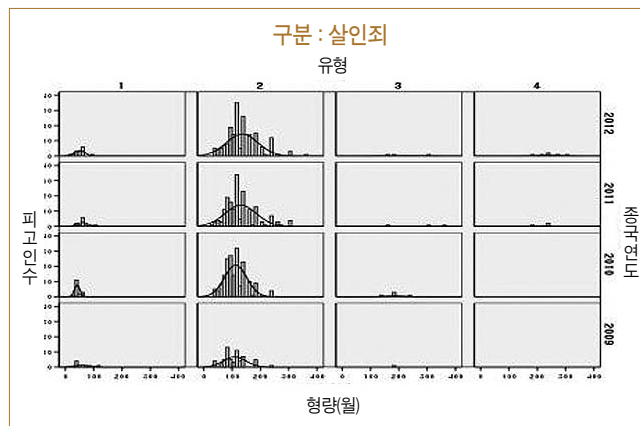
구분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감경	29	79.7	74	81.3	71	92.4	61	91.5
		기본	11	114.5	51	118.1	40	123.2	58	134.0
		가중	20	147.6	59	145.6	63	177.4	62	180.0
		합계	60	108.7	184	112.1	174	130.2	181	135.4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감경	-	-	-	-	-	-	1	156.0
		기본	-	-	1	180.0	1	156.0	1	180.0
		가중	1	180.0	4	186.0	2	330.0	1	300.0
		합계	1	180.0	5	184.8	3	272.0	3	212.0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감경	-	-	-	-	1	180.0	2	258.0
		기본	-	-	-	-	1	240.0	-	-
		가중	-	-	-	-	1	240.0	4	234.0
		합계	-	-	-	-	3	220.0	6	242.0
	전체	감경	33	74.4	84	76.2	76	91.3	71	92.2
		기본	13	106.6	55	115.2	46	121.4	65	126.9
		가중	23	145.0	67	142.2	69	177.8	69	181.9
		합계	69	104.0	206	108.1	191	129.8	205	133.4
살인 미수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감경	2	24.0	4	24.0	4	27.8	1	18.0
		기본	1	36.0	3	29.3	-	-	3	27.0
		가중	-	-	4	30.0	-	-	-	-
		합계	3	28.0	11	27.6	4	27.8	4	24.8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감경	56	28.2	152	29.3	161	29.4	102	31.4
		기본	25	34.6	52	37.4	77	35.9	73	42.7
		가중	30	44.8	57	48.9	64	59.1	47	59.2
		합계	111	34.1	261	35.2	302	37.3	222	41.0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감경	-	-	2	36.0	-	-	3	34.0
		기본	-	-	-	-	1	48.0	-	-
		가중	1	48.0	-	-	2	60.0	7	94.3
		합계	1	48.0	2	36.0	3	56.0	10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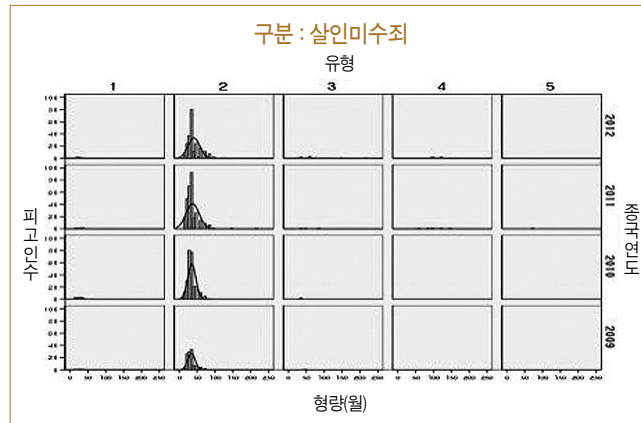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감경	-	-	-	-	1	60.0	-	-
		기본	-	-	-	-	1	144.0	-	-
		가중	-	-	-	-	3	100.0	4	108.0
		합계	-	-	-	-	5	100.8	4	108.0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감경	-	-	-	-	-	-	-	-
		기본	-	-	-	-	-	-	-	-
		가중	-	-	-	-	1	72.0	-	-
		합계	-	-	-	-	1	72.0	-	-
	전체	감경	58	28.0	158	29.2	166	29.5	106	31.3
		기본	26	34.6	55	36.9	79	37.4	76	42.1
		가중	31	44.9	61	47.7	70	61.0	58	66.8
		합계	115	34.1	274	34.9	315	38.5	240	43.3

살인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5 뇌물범죄

가. 분포현황

(1) 선고내역

뇌물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전체사건 563건의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형	집행유예	
뇌물수수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수	14	78	92
		비율	15.2	84.8	100.0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수	68	76	144
		비율	47.2	52.8	100.0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수	43	7	50
		비율	86.0	14.0	100.0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	42	1	43
		비율	97.7	2.3	100.0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수	34	0	34
		비율	100.0	0.0	100.0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형	집행유예	
	제6유형 (5억 원 이상)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전체	수	202	162	364
		비율	55.5	44.5	100.0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수	23	94	117
		비율	19.7	80.3	100.0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수	10	15	25
		비율	40.0	60.0	100.0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	7	17	24
		비율	29.2	70.8	100.0
	제4유형 (1억 원 이상)	수	13	20	33
		비율	39.4	60.6	100.0
	전체	수	53	146	199
		비율	26.6	73.4	100.0

뇌물수수는 전체 364건 중 실형이 202건(55.5%), 집행유예가 162건(44.5%)으로 실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뇌물공여는 전체 199건 중 실형이 53건(26.6%), 집행유예가 146건(73.4%)으로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사건의 실형 비율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뇌물수수는 45.9% → 55.5%로 실형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뇌물공여는 27.3% → 26.6%로 다소 감소하였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의 제1, 2유형은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았고, 제3유형 이상은 실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뇌물공여는 모든 유형에서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유형 및 영역구분

뇌물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경	기본	가중	
뇌물수수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수	2	69	21	92
		비율	2.2	75.0	22.8	100.0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수	10	110	24	144
		비율	6.9	76.4	16.7	100.0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수	6	33	11	50
		비율	12.0	66.0	22.0	100.0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	6	25	12	43
		비율	14.0	58.1	27.9	100.0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수	3	24	7	34
		비율	8.8	70.6	20.6	100.0
	제6유형 (5억 원 이상)	수	0	0	1	1
		비율	0.0	0.0	100.0	100.0
	전체	수	27	261	76	364
		비율	7.4	71.7	20.9	100.0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수	5	80	32	117
		비율	4.3	68.4	27.4	100.0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수	1	21	3	25
		비율	4.0	84.0	12.0	100.0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	4	15	5	24
		비율	16.7	62.5	20.8	100.0
	제4유형 (1억 원 이상)	수	11	17	5	33
		비율	33.3	51.5	15.2	100.0
	전체	수	21	133	45	199
		비율	10.6	66.8	22.6	100.0